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  
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  
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아름선원의 대행스님께 여  
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중로  
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  
자 알 ●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아름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 마음의 중심을 세워서 중도를 행하라!

### 진실만을 볼 수 있으려면...

**문** 얼마 전 TV를 통해 아이들이 사찰에서  
학대하는 내용을 보고 제가 불자라는 것이  
창피했고 그분이 무척 미웠습니다. 그렇지만 오  
늘 일간지를 통해서 본 내용은 그것이 타 종교 예  
방 센터와 기사가 몇 개월 동안 잠입 취재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상당 부분이 과장되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제 자  
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보이고 들리는 그  
모든 것을 진정으로 내 근본에 돌려서 내놓지 못  
한 채 옳다 그르다는 분별만으로 세상을 판단하  
며 살아가는 제 모습이 한심스러웠기 때문입니  
다. 스님, 어떻게 하면 마음의 중심을 세워서 진실  
만을 볼 수 있을까요? 보이고 들리는 어떤 것에도  
흔들림없이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물리를 다 파악 못하고 물  
리가 터지지 못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보  
고 들리는 것만 들으면서 옳다 그르다 하는 겁니  
다. 옳다 그르다가 없이 그대로 여여하게 딱치는  
대로 생활을 한다면 그처럼 그대로가 옳을 텐데  
말입니다. 또 모르고서 그대로 한다고 아무리 해  
봤자 걸립니다. 내면의 나와 돌이 아니게 할 수 있  
는, 내면세계를 완전히 파악하고자 그 모든 것을,  
외부의 모든 것을 가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옳다, 이런 걸 다 보라 그랬잖아요.  
마음의 도리를 배우는 데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는 것이 아예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왈가왈부 하지 말고, 이론으로나 학술로  
따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큰스님들께  
서 공부하실 때 중간에 전부 책을 덮어 놓고 공부  
를 하셨습니까. 부(父)와 자(子)가 상봉을 해서 돌  
이 아닌 도리를 알아야 하고 돌이 아니게 나누는  
도리를 알아야 구경경지에 이르러서 부처님의 말  
씀을 다 응용할 수 있고 그것을 돌이 아니게 증용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구나 하고 다 났었다 말입  
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꼭지가 덜 떨  
어져서 항상 사랑으로만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  
러다 보면 몸이 다 늙어서 사체가 무너지는데 언  
제 공부하려고 그림니까?

그러니까 중심을 잘 지켜서 중도를 행하라 이  
거죠. 중도로서 중심을 지킨다면 항상 회전이 되  
는데 가정에서 말다툼을 할 때도 지나치게 하니  
싸움이 돼서 이혼도 하게 되는 거죠. 그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말입니다. '인생살아가 뭐 그렇고 그렇  
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냥 이만한 건 다 있어버리고 요만한 것 가지고  
는 그냥 특박거리고 그러다가는 나중에는 그냥  
파산이 돼 버리죠. 이게 뭐니까, 이게? 세상에!  
그러니까 모두 마음 중심의 지조를 지키면서 항  
상 자생중생과 한마음으로서, 이 자체를 바로 거  
기어다가... 불을 밝혀주세요. 밝아지는 것도 어려  
분이 지혜로운 마음으로서 굴림을 굴려야 밝아진  
다 이겁니다. 하여튼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이겁  
니다. 요새도 가만히 보면 너무 지나친 데가 있더  
군요. 지나치다 지나치지 않다, 이것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기에서 잘 포착해서 억울한 사람  
들을 해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죠.  
우리가 내 종교다 내 종교다를 떠나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세워서,  
중심이 즉 부처지 판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중심이  
주장자고 중심이 주인공이고, 그러기에 기동 '주'  
를 썼습니다. 생각하기 이전의 그 마음 중심이 바  
로 기동이다 이거죠. 당신의 기동이다. 그러면 그  
기동은 전체적인 기동이 지 개별적인 기동이 아니  
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기동은 뭐든지 내가 원  
하는 대로, 불을 권다든가 라디오를 권다든가 어  
떠한 될 풀인드든가 밥을 짓는드든가 또는 모려  
를 틀린드든가, 모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 주장  
자는 전체적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내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당연한 자기의 중심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  
으면, 진자 믿는다면 그것은 험단의 언덕을 넘고  
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아주 귀중  
하고 훌륭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의 중심에 의해서만이 여건을 이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모두 중심을 지켜  
서 중도로서 증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욕과 패기  
와 광대한 자유를 갖게끔 정신계를 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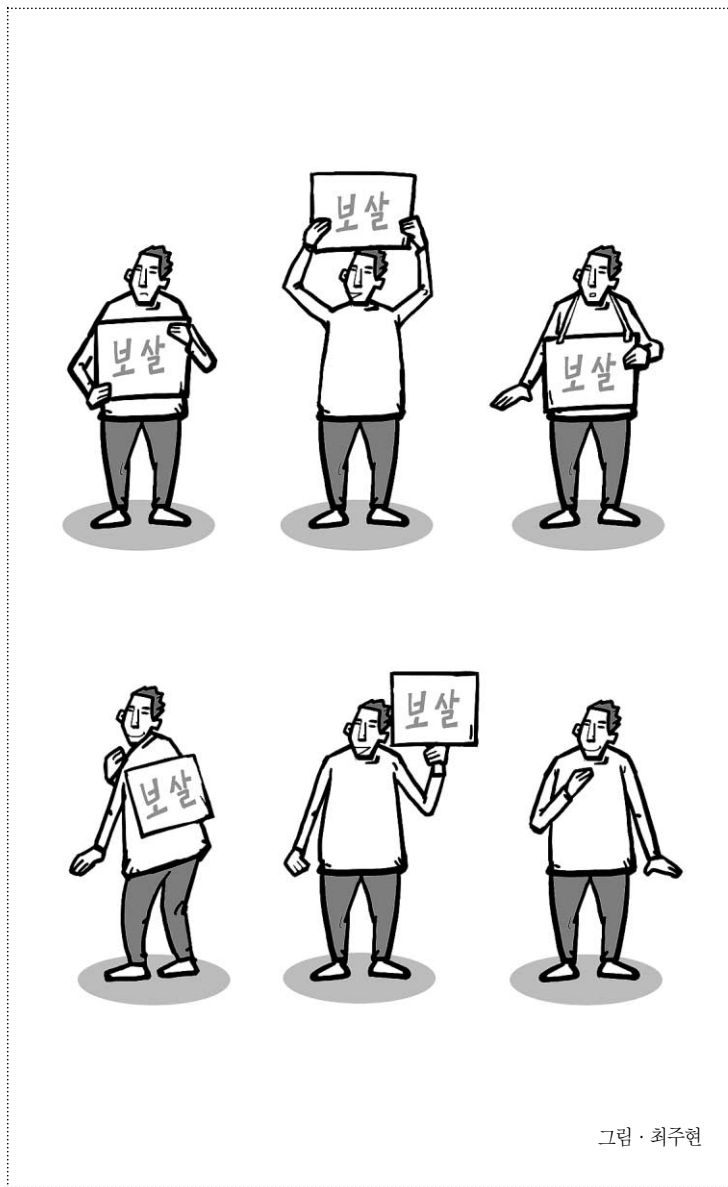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인간 세상도 악육강식이 아닌지

**문**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동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그게 만물의 이치이고, 우리 인간 세상  
도 그것과 똑 같다고 생각합니다. 약자가 강자한  
데 굴릴 수밖에 없는 것이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  
게 보십니까?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잡아먹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닌지요?

**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억급 광년을 미  
생물에서부터 진화되어 거쳐 오면서 쫓고  
쫓기면서 잡아먹고 잡아먹히면서 인간까지 등장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아먹지 않으면 안 되  
게끔 벌써 그렇게 정해졌던 거죠. 그게 가지곤 서  
로 잡아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까뽀를 살  
짝 씹워 놔요. 이 지금 인간으로 까뽀를 살짝 씹  
워 놔거든요. 동물 마음이 지금 속에는 막 우글우  
글한데 사람으로 씹 씹워 놔거든요. 그렇게 해 놓  
고는 서로 사람들끼리 먹지는 않지만, 그러나 마  
음으로는 잡아먹고 살아요. 마음으로는 잡아먹고  
죽이고 살리고 쫓고 쫓기면서 살거든요. 이것도  
진정입니다. 그러니 이 쫓고 쫓기는 세상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인간 세상까지 벗  
어나야만이 부처의 그 도리를 다 알 수 있고 또 중  
생들을 위해서 다 살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견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중생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까뽀 씹워 놓을 그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중생들을  
벗어나야 그 중생들을 견질 수가 있거든요. 그 중  
생들하고 같이 그냥 북박거리면 할아리 속에서  
항아리 어떻게 굴릴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항아  
리를 벗어나야 내 몸뚱이 항아리를 굴릴 수 있다  
이겁니다.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천  
차만별의 마음들을 마음대로 굴릴 수가 있다. 그  
래 내가 벗어나야, 이걸 굴릴 수 있어야, 즉 말하

자면 천백화천으로서의 그냥 응신으로서 털구  
념을 통해서 그냥 들고 나면서 모두 사람들을 건  
지는 게 보살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 누가 보살이라고 이름을 안 지어 줘도  
보살행을 하면 됐지, 보살이라고 이름을 안 불러  
준다는 그런 것도 생각해 말아라 이겁니다. 무슨  
보살이라고 누가 생각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불러  
주지 않으면 어때요? 나만이 즐겁게 웃으면서 응  
신이 돼서 건져 주면 됐고, 내 아픔과 똑같은데,  
내가 울지 않고 정말 즐겁게 웃으면서 길을 걷는  
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활하면서 그대로 생활이  
실상이고 실상이 바로 참선이고 마음이 편안하면  
좌선이니 그렇게 믿고 열심히 살아라 이겁니다  
마음은 요동을 치는데 몸뚱이를 동여매 놓고, 선  
방에 풀이 앉혀 놓고 그래 가지곤 몸뚱이에 병  
이 들게 하고, 그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괴롭  
게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겁니다. 오히려 그  
러는 것은 중생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니까 자  
기의 몸뚱이를 괴롭히고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괴롭히고 그러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것을 모두가 일면 좋은 텐데, 모두 글썽 그냥 경건  
의 관념에 딱 찍어 붙어 가지고 '아이고, 경건의  
말씀만이 제일이지.' 이러지 말고 자기부터 보라  
이겁니다. 자기부터, 자기부터 보아 부처님 말씀  
도 그것도 훤히 다 아거지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  
이 부처님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 어떻게 제도해야 되나요?

**문** 기독교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때  
문에 우리의 삶이 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  
다고 하고 불교에서는 중생의 업보가 너무 커서  
부처를 이룰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본래  
죄인이고 중생인 나를 왜 다스려야 합니까? 본래

그렇게 지워져 있는 내 몸이라면 어떻게 제도해  
야 되는지요? 그리고 고라고도 하지 않았더라면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답** 여러분의 마음내는 지배인은, 마음을 내  
면 속의 중생들이 전부, 의학적으로 볼 때  
도 그렇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방편으로 헤아린다  
해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생명들이, 의식들이, 모습  
들이 그렇게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따  
진다 해도 간단하게 즐잡아서 심일역이라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그건 숫자를 딱 맞춰서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심일역 중에 하나만, 그것 하나  
가 생각하는 것만이라도 그 한 생각에 수천수만  
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효가 모  
래일 걸겠습니까?

그러니 그걸 리드해 가지고 나가려면 모든 게,  
그게 만약에 그 중생들이 다 그 부처님을 모신다  
고 합시다. 만약에 그런 생명들 모습을 의식들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없습디다. 그러니 그 안에 있

고, 마음 편안하니 좋고, 가정에도 악한 일이 생기  
지 않으니 좋고, 우환 생기지 않으니 좋고, 화복하  
니 좋고, 애들 속 안 썩이니 좋고, 모두가 전력과 같  
고 광력과 같아서 두루 밝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수화풍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수  
화풍을 먹고 살고, 지수화풍으로서 대두해서 나  
가기 때문에 재료가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오  
분과 같아요. 오분과 같은데 전기가 전력이 없다면  
또 어떻게 오분을 돌리겠습니까? 물건이 없다면  
또 어떻게 해 먹겠습니까? 그게 다 끌고루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주 열  
맞게 맞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의 영  
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부처라고 그랬어요. 그  
래서 화신 따로 있고, 법신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은 갖추어 가지고 있  
으니까요. 그러니깐 속 썩이지 말라 이겁니다. 하  
늘이 무너지더라도 속 썩이지 말고 서로를 자유

## 마음의 도리를 배우는 데는

##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가 아예 없어야

는 그 마음들이 수없이, 자기가 약이든지 선이든  
지 조그만 거든지 큰 거든지 다 지은 대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자세히 말하자면 정지와 난  
자가 한데 합쳐져서 수많은 모습들이 한데 모일  
때, 바로 어귀의 삶을 빌리고 아버지의 뼈를 빌  
려서 몸 하나를 받았는데 말입니다. 받았는데 그  
영혼이 자기가 과거에 산거를 짊어지고 거기에  
삼함어 한데 합쳐집니다. 그럼으로써 인생 하나  
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생이 나와서 수없이 속을 상하게  
도 하고, 안되게도 하고, 뭘 못하면서도 안되게 만  
들고, 만약에 원수로 인연을 지은 업이 있다면 그  
냥 속을 썩여서 문드러지게 만들고 말입니다. 남이  
속을 썩여서 자기가 그냥 못 견디게 만들고, 병고  
를 일으키고 온통 뭐, 그건 말도 할 수가 없는 위기  
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거기에  
속지 말고, 즉 말하자면 마음을 비우라 이 소리죠.  
그건 왜? 거기서 일어나는 대로 거기에 속아서 말  
리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너희들한테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알아  
서 해라 이거예요. 거기다 놓아라 이 소립니다.

그걸 자세히 얘기하자면, 그 시스템을 지금 우리  
말로 말을 하자면 탐지자, 팩스, 무선 통신기, 망원  
경, 컴퓨터 이 다섯 가지가, 누진통은 레이더망으  
로 치구요, 그 오신통에서 벗어난 레이더망입니다.

##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 부처님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오신통 시스템이 어떻게 되었느냐. 속  
명뚱이라는 컴퓨터가 과거에 살던 자기 업대로 전  
부 인과가 돼서 거기에 입력이 돼 있던 말입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간 없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잔뜩 짊어지고 있는데 입력을 해놓는 그것을 어떻  
게 지워 버릴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 작업을 어떤 것부터 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살아나가는 대로  
바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살아나가는 대로  
바로 입력이 돼서 지금 현실에 살아나가는 대로  
바로 입력이 다시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과거에 입  
력된 것을 지금 현실에 또 입력을 한다면, 나온 걸  
되놓는다면 과거에 입력된 건 다 무너지고 말아  
버리는 겁니다. 오간지옥이라든가 업보라든가 유  
전성이라든가 영계성, 세균성 모든 업보, 화랑지  
옥이니 뭐니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  
입력되는 것이 다시 그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평화스럽고, 몸이 건강해지니 좋

롭게 해 주면서 편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병이 안 생기거든요. 헬팩이 딱하면 연락  
없어요. 암도 생기는 게 거기서 오는 거고, 여러분  
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그냥  
돈을 굴리고 약을 쓰고, 그 어떤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담비는 사람이 병이 들고, 사업을 하다가 망  
한 사람이 병들고, 또 속 썩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필필 뭐고 화가 일어나고 그러는 사람이 그 안에  
걸려요. 암이라는 것도 지금 알았지, 옛날에 무  
슨 암이라는 걸 어떻게 알고 그랬었어요? 그렇지  
만 암 잘 걸리죠. 백혈병 잘 걸리죠. 관절 잘 걸리  
죠. 풍 잘 걸리죠? 이걸 뭐 흑이다 뭐다 하고 두뇌  
에 많이 잘 걸리죠, 눈 시력 나빠지죠? 전체가 그렇  
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서서 종교는, 불교라는 것은  
어디 국한돼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근본  
과 우리 서로 말하는 이 말 자체가 '교'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 아닌 게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  
기독교라 그리고 불교라 그리고 또 알라신교라 그  
러고 이렇게, 종교가 그렇게 많은데 말입니다. 글  
썽, 지구 안에 다 있지 지구 바깥에 있는 건 아니니  
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서 우리 몸 안에서 벗어  
나고, 지구 안에서 벗어나고, 우주 안에서 벗어나  
야 우리가 인간이라고, 불제자라고 자부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

유를 가지고 앉아서 이 세상을 모두 탐려했 거만  
서 앉아서 모든, 나무 한 그루의, 아니 다 죽어 가  
는 고목의 소리라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좀 고생이 되더라  
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급  
광년을 거쳐 오면서 얼마나 진화되면서 쫓고 쫓기  
면서 이렇게, 인간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 몸 받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짐  
승의 몸으로 한번 태어나 보세요. 그 습이 붙어 가  
지고 짐승의 무명을 벗지 못한다 말입니다. 그러  
니 천 년 만에 한 번 벗거나 말거나 한다고 그랬습  
니다. 인간도 이 인간 몸에서 벗어나야 인간을 굴  
리지요. 자기를 굴리지요. 그 많은 중생들이 자기  
몸속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 많은 의식들을 다 한  
마음으로 묶고 가려면, 그래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 속에도 놓을 줄 알아야 되죠. 하인을 부  
려도 똑똑히 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의 가  
능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려면 말입니다.

# 그 속에서 나온 것 그 속에다 놓을 줄 알아야

29면에서 계속

## 화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

**문** 스님, 요새 제가 하고 있는 경험인데요. 거의 화가 잘 안 나오요. 그런데 제가 가끔 생각할 때마다 화는 안 나지만 때론 제가 화를 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화를 내야 되고 어디서부터 화를 안 내야 되는지 그 선을 못 긋겠습니다.

**답** 무조건 화내지 마시고 어떠한 거든지, 부부지간이나 부모자식지간에 어떤 게 걸린 게 있다 해도 모든 것을 자기중심에 맡겨 놓고 부드럽게 말을 하세요. 부드럽게 하세요. 애들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부모한테도 그렇고, 형제한테도 부드럽게 말을 해 줘요. 그러면 따뜻하게 고여서 당신을 또 따뜻하게 맞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드러워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마음은 평등하게 가져야 합니다. 자기 주체를 말고 모든 것을 거기 맡겨 놓고 거기서밖에 해결해 줄 수가 없다 하고 믿어야 합니다. 둘러서지 말고, 모든 일체를 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도에 따라서 자꾸자꾸 다가오는 생활 속에 경계들이 전부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재료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닥쳐도,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솟아올라도 그럴 재료로만 알고 맡겨 놓는다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죠. 거기서 풀리가 터지고, 거기서 그릇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바로 출연히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맡입니다. 나타나면 들 안인 도리를 또 배우려고 점검을 받고 이러한 거지요. 그땐 갑갑이도 필요하구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무조건 그런 걸 따지지 마시고, 요런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말을 해야 하고, 어디까지 놓아야 하는가 그러지 마시고 무조건이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든지 다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무조건 답답한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 안되게 하는 것도 그 속에서 나오는 거, 자기가 이날까지 살림했지 누가 댄 사람이 해 줬나? 네? 그러니까 그 살림하는 게 전부 보고 듣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도 결정 내리고 이 날까지 살아왔죠? 그러니까 그 결정 내린 그 장본인 자체에, 주체에게 맡겨 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출연히 자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첫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모든 모습들이, 모든 의식들이 '야, 한마음으로서 자기와 똑같이 인정을 해 주는구나.' 이러고서 아주 좋아서, 흥겨워서 컷노래만 부르게 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병이 들었던 것도 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믿어야죠. 근데 자기를 풀고 다니는 자기를 왜 못 믿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데. 지금 질문하게 한 것만도 감사하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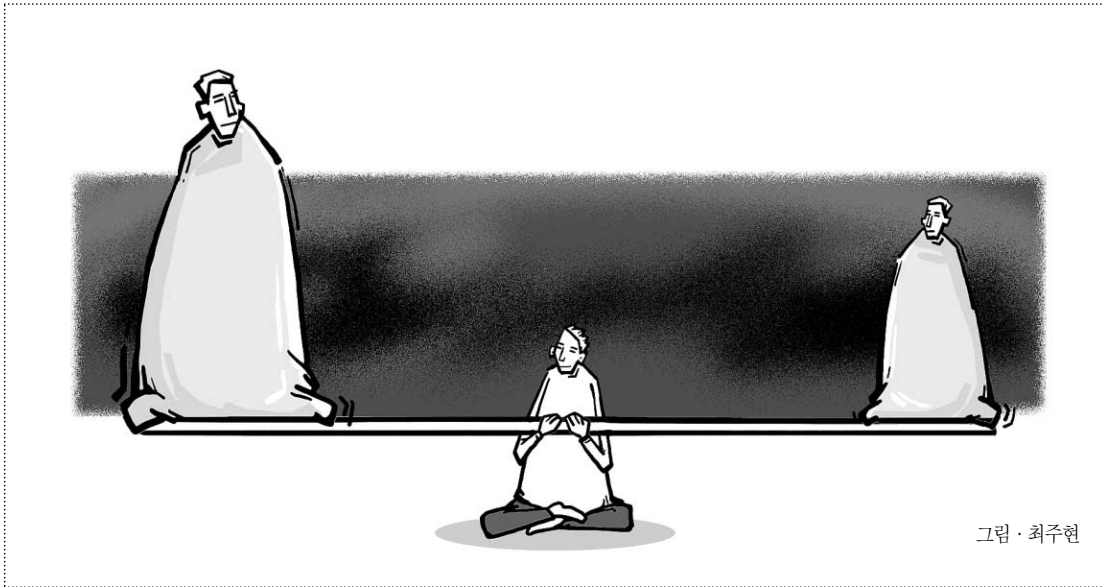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쫓고 쫓기며 이렇게 인간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세균성에 대해서

**문** 스님께서 영계성, 인과성, 세균성, 열보성, 유전성 이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세균성은 원인 없이 그냥 경계가 오는 것 아닌지요. 세균성도 어떤 인연의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요?

**답** 마음이라는 것은 작으나 크나 똑같습니다. 내 집부터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 몸속에는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누적된 다섯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우리는 수없이 과거로 해서 미래로 해서 현재로 다시 들어오고 또 돌아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누구인가 다 똑같이 돌아오긴 하는데 모습을 어떻게 가지고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천차만별의 마음의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대로 모습을 쓰고 나

오니까요. 이것을 기필코 우리가 해결하고 뛰어 넘어야 되겠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성, 세균성, 영계성, 열보성, 유전성이 다섯 가지가 문제가 되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세균성을 많이 맺어 놓은 사람은 고기를 많이 잡아서 해줬다가나 살생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된 인연들이 많죠. 세균성이라고 하는 것도 살생과 더불어 원한인 인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뱀 소굴에서 뱀들을 잡는다가나 이랬다면, 인신을 하지 않았어도 꼭 그것이 자식들한테로 대치가 되거든요. 그거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균성의 원리가 그러하니까 그렇게 세균성이 오는 거죠. 내 자식들을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네 자식 때문에 이렇게 좀 돼 봐라 하고 여지없이 유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거는 없습시다.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것이 오는 이치는 없어요. 절대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그 속에서 각종의 인연을 많이 맺은 사람들은 지금 자식들로

인해서 속도 썩거나 불구인도 나오고 별의별 일이 다 나오는데, 이 인과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테냐는 얘깁니다. 선종으로 인연을 많이 맺은 사람들은 선종을 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극진하고 말을 잘 듣고, 속안 썩이고, 그냥 수순하게 살아 주는 그런 가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갖다 준 게 아니라 바로 내 속에 그렇게 주둔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그렇게 주둔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과성에 연결이 돼서, 고리가 고리를 들고 나오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도 고리가 고리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풍자가 그 풍자니까, 그러니까 선종이다. 악종이다 하는 인연을 자주 만든다면 아니 되죠, 그거는. 그래서 과거는 내 몸중에 다 주둔해 있기 때문에,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다 이러는 겁니다.

##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신문,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차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 \*자동차제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센터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 관상학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4시)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S 대응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 454-3368**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중  
특별강의 : 사주학, 기문둔갑

### “범죄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실지요.

**3인원용**  
dbx, MACKIE, CROWN

만들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시는 (주)아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3인원용  
아단법석 문의: 050-5844-0108 (관음사입부)

**사원 모집** (주)아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아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원 - 남 0명, 여 0명
- 근무처 : 본인 거주지
- 문의 : 050-5244-0108

## 韓·中 秘方針法

- **음양원리 침법** : 우리 인체의 365혈을 단 7혈만 응용하는데 어느 부위가 어떻게 아프던지 월 1-3개만 꽂으면 1분 이내로 효과를 볼 수 있고 간단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5시간만 강습을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신비한 가정 의학이다.
- **사상체질 침법** : 사상체질을 정확히 감정하는 법과 체질에 맞는 음식 궁합과 한약재를 처방하고 간단한 체질공식 침법으로 만병을 고친다.
- **명형 침법** : 중국 인민 장교들에게만 비밀리에 전수되어온 1침법으로 사병들을 치료하였던 것을 왕문원교수에 의해 세상에 밝혀진 침법.
- **전통활락법** : 220V 전기를 직접 사람이 사용하여 누구나 쉽게 바로 최고의 기공력을 쓸 수 있다. 사기를 받지 않고 손기가 없다. 전립선염이 낫고 성능력이 회복된다. 마비된 신경이 살아난다. 독소가 배출되고 정상체중으로 회복된다. 디스크 수술 2번에도 사라지지 않던 통증이 사라진다.

황제내경 맥진법과 복진법으로 인체에 모든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불어 사암도인 침법을 1시간의 강의로 원리를 통달 할 수 있게 강의하여 드립니다)

- **강의시간** : 8월 1일 오후 3시부터 4일까지(4일간)  
주 말 반 : 8월 6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7월, 13, 14, 15일까지
- **속식제공** 4일간 실우교육 : 보시금 1백50만원 (예약전화 외 사절 / 선착순 10명, 예약 선입금) **농협 457109-52-098389** 홍진금
- **찾아 오시는 길** : 공주시에서 청양가는길 13km 오셔서 공수원 4거리 하차(신동명 쪽) 900m 좌측, 대나무 있는 곳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686번지 **천재 불국사 의성 함장**  
**041)855-7114, 016-663-2159**

## 통증·근육통 완화

“관절 · 허리통증 · 어깨결림 각종통증”

### 적외선조사기(통증 완화) 탄생

1. 먹고 2. 바르고 3. 찜질하고  
123시스템으로 통증에서 해방

적외선조사기  
통증, 근육통완화

1·2·3시스템으로 해결하세요

먹고 1. 자생물 신비향기123통증완화제  
바르고 2. 세바크림  
찜질하고 3. 적외선조사기

공통개발  
(주)임신코리아  
(주)고려생약

대리점모집 문의전화  
**080-521-6666**